

특집 | 그들도 우리처럼

「인권」이 만난 사람 |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 속의 봉어

길에서 만난 세상 | 몽골에서 만난 두 소년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1, 2)

# 한국인? 세계인!

글 설동훈

인식을 전환하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는 '한민족의 혈통이 절반 섞인 사람'이 아니라 '두 배의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 임종진 ▲▶



◀ © 김운섭

최근 세계 각지에서 물류와 정보의 흐름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매우 활발하다. 한국인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도 그 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많이 늘었다. 국제연합(UN)에서 석 달 이상 의도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한국사회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민사회라 할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및 외국 국적 동포들도 있지만,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도 있다. 한국은 영주 목적의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것은 이미 과거사가 되었다.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이민 1세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이민 2세가 태어나 성장하고 있다. 이민 2세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의 자녀이지만,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도 있다.

이주노동자는 전국의 공단지역과 농장양식장·건설 현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중국

과 구소련 출신인 외국 국적 동포들로서 이들은 식당·병원·가정에서도 일하고 있다. 전국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적지 않다.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지만,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농촌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 지구화는 대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외가 또는 본가가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민'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한국인의 쌍방향 적응이 요구된다. 첫째, 이민자는 자신의 고국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 한국어를 익히고, 사회제도와 문화적 관습도 배워야 한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

망의 빛이 보인다. 이민자들이 출신국 거주지별로 모임·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자들과 한국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인들도 이민자 유입에 따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진 한국사회가 이민자 없이 생활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혈통의 순수성'에 입각한 민족 개념이 신화에 불과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식을 전환하면, 결혼 이민자 가족의 자녀는 '한민족의 혈통이 절반 섞인 사람'이 아니라 '두 배의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한다. 그들의 국적이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 즉, 한인(韓人)이라는 점을 확인·재확인해야 한다.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 자격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대하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출신국과 민족인종·종족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인간(人間)'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한국인(韓國人)'이라는 점을 존중하여야 한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이민자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민자를 아내·남편 또는 며느리·사위로 둔 한국인들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음과 마음이 열리도록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이민자와 그 가족이 서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면, 언어의 장벽은 금세 무너질 것이다.

친인척·이웃·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하는데 결혼이민자를 "돈에 팔려온 사람"으로 간주하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표출된다. 피부색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출신국의 경제와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이민자의 피부색이 한국인보다 희거나 검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라고 깔보아도 안 되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한편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도 문제이다. 그들을 무턱대고 지원하는 온정주의는 배격하여야 한다. 무료진료 등 공짜 서비스는 그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독소(毒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자녀들 중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따돌림(왕따 현상)'의 피해자가 적지 않다. 아이들의 태도는 기성세대의 인식과 사고의 반영이다. 성인들은 속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가정·학교·사회 등 다양한 사회화 기관에서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다문화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이민자 유입이라는 상황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므로, 다문화인의 자세를 모두가 배워야 한다. 어떠한 태도와 관념 및 행동이 이민자에 대한 편견·고정관념·차별인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일차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반복·체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실력과 자부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체의 제도적 차별과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면, 작은 난관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는 다른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진취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제거되면, 그들 역시 선진 복지사회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사회를 세계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핵심적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문화가 한국문화 속으로 융합되고, 우수한 한국문화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것이다. ○

★ **심봉훈** 남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